

곡성군, 스마트폰·키오스크 실생활 사용법 전수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 운영
전문교육진 마을회관·경로당 순회
최신 디지털기기 사용법 직접 지도
‘눈 건강 자가진단’ 시력검사 병행

곡성군이 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다.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키오스크 이용방법까지 실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

기 사용법 전수에 주력할 계획이다.
29일 곡성군에 따르면 9월4일까지 ‘찾아가는 디지털 에듀버스’를 운영한다. 디지털 에듀버스는 최신 디지털 기기를 탑재한 이동식 학습 공간을 통해 군민들에게 직접적인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에듀버스는 전문 교육진이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최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직접 지도한다.

교육 내용에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AI 스피커,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실제 활용 방법이 포함된다.
이번 과정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눈 건강 자가 진단 키오스크’가 도입돼 참가자들이 시력검사와 노안검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 학습과 함께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에듀버스의 운영 일정은 29일 옥과면 옥과리 마을회관과 입면 입석1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30일 석곡면 흥지마을회관과 대곡2구 마을회관, 9월 4일 고달면 천마경로당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에듀버스 운영을 통해 디지털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많은 군민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공원 녹지공간 환경정비 순천시, 오천그린광장 등

순천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원 내 풀베기 등 환경정비를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천그린광장과 조례호수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도심권 근린공원과 신대지구 등 녹지시설에 대하여 풀베기, 수목전정, 병해충 방제 작업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도시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원화장실, 공원 등,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도 오는 9월10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비가 필요한 곳은 현장 정비반을 투입하여 즉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곳으로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근린공원 29개소, 어린이공원 62개소, 소공원 42개소, 녹지대 100개소 등 총 247개소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공원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년일자리 지원 참여자 모집 담양군, 9월10일까지 접수

담양군은 ‘2024년 담양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를 9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담양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 경제적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창업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창업 컨설팅 및 제품 개발 비용 등 창업 사업화 자금 1000만원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지역 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초기 창업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담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 담양군청 경제교통과를 방문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창업자들의 맞춤형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

지역상품권 10% 할인 판매 해남군, 1인당 구입한도 70만원

해남군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9월 한달간 ‘해남사랑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1인당 구입한도는 70만원으로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35개 판매대행기관(농협, 신협, 축협, 새마을금고, 광주은행, 수협)에서 구매 가능하며, 카드상품권은 판매대행기관에서 발급한 후 지역상품권 앱(착, chak)을 통해 구매(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남사랑카드 또는 QR상품권 결제시 캐시백 행사도 지속한다.

상품권 가맹점에서 카드나 QR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5%를 되돌려 준다.

카드상품권 이용자는 구매시 10% 할인을 받고 결제시 5% 캐시백이 추가 적립이 되어 15% 할인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가게 부담을 덜고 온가족과 친지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데 해남사랑상품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애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전연수 기자



영광군은 27일 군남면 용암저수지와 불갑저수지에 어린 동자개 30만 마리와 어린 자라 1만2000마리를 방류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저수지 2개소 어린 동자개·자라 방류

영광군(군수 권한대행 김정섭)이 내수면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난 27일 군남면 용암저수지와 불갑면 불갑저수지에 어린 동자개 30만 마리와 어린 자라 1만 2000마리를 방류했다.

29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한 동자개는 빠각 빠각 소리를 내서 흔히 빠

가사리로 불리우며 유속이 완만한 하천의 중·하류에 서식하는 야행성 물고기로 등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것이 특징이고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하는 어종이다.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다양한 요리 재료로 수요가 높은 고소득 어종으로 알려져 있다.

자라는 우리나라에는 1종만 서식하며 저수지 및 하천 퇴적층을 파헤치는 습성이 있어 저수지 오염 예방, 생태계 환경·수질 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방류는 군민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방류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자 방류를 확대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수산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목포해경, 갈치낚시 행사 안전관리

12월10일까지 계도·단속 강화

목포해양경찰(서장 권오성)이 12월 10일까지 112일간 목포·영암 항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갈치낚시 행사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매진하고 있다.

29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한시적 허가를 받은 낚시어선 47척이 참가한다.

갈치낚시 행사는 도시의 야경을 구경하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매년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실시한 갈치낚시 행사에는 1만4316명의 이용객이 참가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7월 16일 갈치낚시

관계기관 사전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목포해수청, 한국해양교통관리공단, 목포시, 영암군과 함께 행사 참여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행사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계도 강화, 허가조건·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연안구조정 즉응태세 유지 등 사건·사고 대응 강화를 통해 안전한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안군 지도읍, 읍사무소 이전 논의

30년 행정 기능 담당

옛 지도군 관아터에 자리 잡은 지도읍사무소가 이전을 추진한다.

신안군 지도읍(읍장 박상규)은 지난 28일 지도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군의원, 사회단체장, 마을대표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읍사무소 이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원회 임원에는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에는 최 영, 남상진, 남경희 씨가 선출됐으며 발대식에서 청사 건립 건의서와 청원서 채택,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일정을 협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읍사무소 이전의 당위성 홍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지도읍사무소는 1993년에 지어졌으며

지난 30여 년간 행정 기능을 담당했다.
이런 역사를 뒤로하고 이전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건물에는 비가 새고 청사 진입 구간의 급경사와 커브길로 사고 위험도 높아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서이다.

후보지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해 몇 군데 검토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청사 이전 건립이 순조롭게 되면 현 읍사무소는 철거하고 옛 지도군 관아를 복원해 역사박물관과 주민쉼터가 조성되면 좋겠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다.
신안=홍일갑 기자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장성군, 2132필지 대상

장성군이 상반기 토지 이동분 2132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시행한다.

29일 장성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전체 필지 1월 1일 기준 이동 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결정한다. 확정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앞서 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토지 이동분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쳤다.

지가 열람은 장성군 누리집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된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3일까지 민원봉사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한 감정 평가사 검증 및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는 10월 17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31일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문의는 장성군 민원봉사과(061-390-7691~3)로 하면 된다.

장성=유봉현 기자

전일보

©jnibo
Kakao Talk : 전일보
E-Mail : jebo@jnibo.com